

#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활용한 가족기업 연구 진화동향 분석

**조남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제1저자 njcho@hanyang.ac.kr)  
**김찬형**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제2저자 chanran@hanyang.ac.kr)  
**유기섭**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교신저자 yugs@hanyang.ac.kr)

## … 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 of family business research in Korea using the text mining method. As a result of the frequency, research on family businesses was mainly conducted in succession fields. The TF-IDF results analyzed over time showed that the importance of succession gradually increased. It means that research interest is increasing in line with the retirement period of incumbent CEOs. Furthermore, as a result of topic modeling, it could be divided into five topics, and the ratio of management strategy and governance was the highest. By examining the trends in family business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interest in family business research will increase and research topics will be expanded.

**Key Words** : Family Business, Research Review, Research Trend, Big data, R

## I. 서 론

가족기업은 비가족기업과 많은 분야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족기업 연구가 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Drucker, 1997, p.31). 학문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서양의 경우 2000년 대 초반 이미 약 120여개의 교육기관에서 가족기업 관련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Family Firm Institute, 2001),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 기관 중 학위 과정으로 설치된 기관은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 설치된 석사학위과정 Y.E.S. (Young Entrepreneurship

Spirit) 트랙이 유일하다. 가족기업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국가에 미치는 큰 영향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Sreih et al., 2016), 국내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Family Business Review, Journal of Family Business Strategy, Journal of Family Business Management 등과 같은 가족기업 연구 관련 전문 학회지가 다수 존재하는 서양에 비해, 국내의 경우 관련 전문 학회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연구의 흐름이나 동향을 더욱 어렵게 한다.

서양의 최근 연구는 주로 가족구성원이 기업의 정체성에 (Company Identity)

미치는 영향 분석 (Anglin et al., 2017), 혹은 가족구성원이 기업의 승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Stanley et al., 2017; Bertocchi et al., 2019; Schell et al., 2020) 등 가족과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경영학 분야의 주요 화두 중 하나인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리더십 승계와 연관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Nichole et al., 2021; Giorgio et al., 2018).

국내 연구의 경우 승계자와 후계자의 신뢰 관계에 대한 분석 (Cho et al., 2022), 가족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유혜영, 2022), 가족기업 사례 연구 (박헌준 외, 2021), 승계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순위 분석 연구 (Cho et al., 2022),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가족기업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이슈를 제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분석된 가족기업 연구의 주요 키워드와 이슈는 무엇인가? 둘째, 가족기업 연구 이슈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존재하는가? 셋 째,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향후 연구가 필요한 세부 영역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하여 선행연구의 명문초록을 분석하고, 대상 논문에서 주된 키워드로 활용된 단어 간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기업에 관심 있는 많은 연구자 및 관계자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학문적 접근 및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하고 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족기업의 정의

가족기업은 Family Business, Family Firm, Family Enterprise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불려진다.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는 만큼, 가족기업을 정의하는 방법이나 관점 역시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족기업의 정의는 주로 학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Churchill et al. (1987)이 최초 제안한 가족기업의 정의는 기업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족구성원이 보유하고 있을 때 가족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소유권을 강조한 가족기업의 정의와 (Anderson et al., 2003; Andres, 2008) 기업의 소유권과 통제권 뿐 아니라 가족의 비전을 기업을 통해 계승하고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이 가족기업으로 정의 (Chua et al., 1999)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가족기업의 연구에서 가족기업을 정의할 때 주로 쓰이는 정의가 Astrachan et al (2003)의 가족구성원의 참여정도로 분석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 1세대 구성원만 경영에 참여할 경우 Narrow Concept, 2세대 이상의 구성

원이 경영에 참여하면 Middle Concept, 가족구성원이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사회 등에 포함되어 기업의 전략적 방향만 제시하는 기업을 Broad Concept 으로 분류하였다.

소유권과 통제권 이외에도 가족구성원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가족기업을 정의한 연구도 존재한다 (Astrachan et al., 2002). The Family Influence on Power, Experience, Culture Model (F-PEC)은 인위적으로 가족기업을 정의하기보다 가족구성원이 권한, 경험, 문화의 3가지 관점에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가족기업을 정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현재까지 통일되어 활용되어진 가족기업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자의 처한 환경 및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정의는 달라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기업의 통일된 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본질적인 의미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 2. 국내의 가족기업 동향 선행연구

가족기업과 관련된 메타 혹은 빅데이터 분석은 다양한 이슈를 기준으로 연구되어져왔다. 가족기업의 본질적 중요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Andreini et al., 2020) 83개의 연구 논문을 고객의 거시 (Macro), 중양 (Meso), 미시 (Micro)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고객의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가족기업의 본질적 중요성을 확인하였

다. 가족기업은 가족기업의 정체성, 새로운 시장에서의 기업 형태 등을 구성하고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가족기업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세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분석도 존재한다 (Magrelli et al., 2022). Web of Science와 Scopus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검색된 39개 저널의 253개 논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세대 (Generation)를 키워드로 어떠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분석하였다. 해당 주제로 진행되어진 연구는 주로 사례연구 (35개), 인터뷰 (12개) 등이 이루어졌으며, 설문연구는 27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 단위는 조직 관점에서의 분석이 87개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관점에서의 분석은 17개로 나타났다. 분석된 사전 연구를 바탕으로 세대 간 연구를 이해하기 쉽게 관점과 장소를 기준으로 설계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가족기업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갈등에 관한 동향 연구에서는 (Kubíček et al., 2020) 가족기업과 갈등의 키워드로 분석된 88개의 논문을 분석이 진행되었다. 동향 연구 분석을 통해 가족기업 내 갈등을 투입 - 과정 - 도출 (Input - Process - Output)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김석웅 (2002)의 연구와 남영호 (2020)의 연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김석웅 (2002)의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을 포함하여

총 27편의 논문을 분석하였으며, 저자의 전공이 가정학이 (13명, 48.1%) 가장 많고, 경영학 (6명, 22.2%), 경제학 (5명, 18.5%)의 순서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주제별로는 가족기업의 개념 정의가 8편 (29.6%), 전략 경영 분야가 12편 (44.4%), 가족구성원의 영향 분석 11편 (40.7%) 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4편 (14.8%) 였다.

남영호 (2020)의 연구에서는 112편의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학술논문 212편, 총 324편의 연구 논문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수집된 논문을 연도별 논문의 발표 수, 가족기업의 정의, 연구의 형태, 연구의 주제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연도별 발표 논문의 수의 경우 2016년에 45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가족기업의 정의의 경우 정의 없이 활용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160편, 49.4%), 연구의 형태는 가설검증을 위한 실증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1편, 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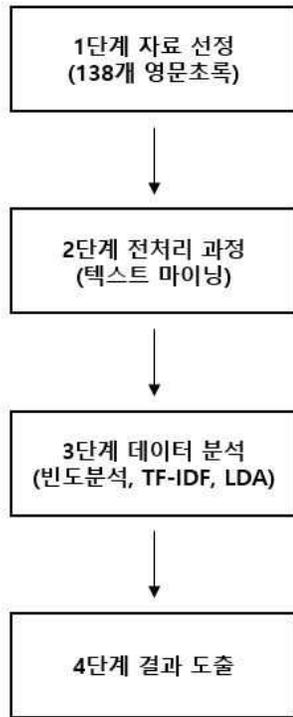
어떠한 추세와 특징을 가지고 진행되었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ScienceON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검색 키워드는 ‘가족기업’ 혹은 ‘Family Business’ 로 설정하였으며, 검색은 영문 초록으로 한정하였다. 가족기업과 Family Business를 키워드로 설정한 이유는 가족기업의 다양한 이슈를 포함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이다. 해당 키워드로 검색된 내용 중 국내 학위 및 저널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추출된 대상 논문은 학위논문 97개, 저널 논문 95개로 총 192개이다. 이 중 영문 초록이 없는 54개의 논문을 제외한 138개의 논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족기업 전문 학술지 부재 및 가족기업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부족한 국내 연구 환경을 반영하여 학위논문 까지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분석을 위해 활용된 프로그램은 R Version 4.1.2 이다. 본 연구의 연구 분석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 Ⅲ. 연구방법론

#### 1. 연구방법 및 분석 대상

본 연구는 가족기업의 연구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논문의 형태나 키워드의 빈도 분석을 통한 표면적 흐름의 분석이 아닌 가족기업 연구가



<그림 1. 연구 분석 과정>

## 2.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 분석 기법

텍스트 마이닝은 웹에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트렌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실효성이 높은 분석 기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Feldman et al., 1995).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비정형 데이터의 의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홍근, 2013), 데이터 간의 의미나 연결성 등을 파악하기에 유용하다 (김선아 외, 2016).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여 빈도 분석과 추출된 단어 간의 유사성과 일반성을 파악하기에 유

리하며 (전채남 외, 2013), 이를 시각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Paranyushkin, 2011).

텍스트 마이닝으로 추출된 단어의 빈도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할 수 있다 (유은순 외, 2015). 그러나 문제는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다른 문서에서도 빈도수가 높을 수 있는 문제와 의미 없는 명사의 빈도수가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기법이 활용되어진다 (김순홍, 2022). TF-IDF 기법은 단순 빈도분석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해당 문서 내에서 단어가 차지하는 중요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정근하 외, 2011; 김순홍, 2022).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TF-IDF의 결과를 연도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기업 연구에서 중요하게 활용되어진 키워드를 도출할 예정이다.

토픽 모델링 (Topic Modeling) 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하나로 독립적인 토픽의 존재 여부, 공유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 데이터 안에서 부분적인 토픽을 분석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분석 방법이다 (김현희 외., 2016). 토픽 모델링은 구조적 토픽 모형, 잠재적 디리클레 할당 모형, 상관 토픽 모형 등의 기법이 존재한다. 그 중 잠재적 디리클레 할당 모형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방법은 결과 해석이 용이하고, 과 적합 문제를 해결되어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에 주로 활용된다 (Griffiths et al., 2004).

## IV. 연구결과

### 1. 전처리 결과

본 연구의 빈도 분석 실시 전,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특수 기호, 숫자, 불용어 등을 제거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study’, ‘effect’, ‘factor’, ‘research’, ‘analyzed’ 등 일반적인 통계 혹은 설명을 위한 단어들도 제외하였다. 전처리 결과 총 248,334개 단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도출된 키워드 빈도 분석은 다음과 같다. 승계를 의미하는 ‘succession’이 가장 많은 302회 도출되었으며, ‘management’, ‘performance’ 등이 많이 언급되었다. 가족기업의 영역 중 기업과 관련된 단어들의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빈도수 상위 30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출된 빈도 분석을 통한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표 1> 연구변수의 측정항목

순위	단어	빈도수
1	succession	302
2	management	206
3	performance	190
4	tax	106
5	relationship	96
6	ownership	95
7	social	87
8	satisfaction	86
9	work	84
10	successors	81
11	support	79
12	influence	76
13	characteristics	72
14	entrepreneurship	71
15	data	68
16	process	68
17	development	68
18	culture	62
19	financial	61
20	members	60
21	governance	58
22	employees	56
23	higher	53
24	chinese	50
25	inheritance	49
26	role	49
27	owners	45
28	policy	45
29	capital	44
30	economic	44



<표 2> TF-IDF 분석 결과

순위	단어	TF-IDF	순위	단어	TF-IDF
1	succession	3.466425292	16	process	1.299945026
2	performance	2.533539325	17	enterprise	1.280857535
3	satisfaction	2.199405039	18	chinese	1.263928519
4	entrepreneurship	2.148813781	19	social	1.257373797
5	work	1.841255085	20	characteristics	1.229448827
6	ownership	1.801277537	21	employees	1.22709846
7	tax	1.763035231	22	corporations	1.211333596
8	management	1.70412905	23	relationship	1.194674026
9	workers	1.619457688	24	organizational	1.176206888
10	job	1.601279185	25	variables	1.175696298
11	support	1.590117242	26	intention	1.149616063
12	small	1.507181048	27	ceos	1.146415906
13	culture	1.377513885	28	policies	1.142688692
14	successors	1.338555054	29	owned	1.140904565
15	owners	1.31305973	30	programs	1.129494177

<표 3> 연도별 TF-IDF 흐름 분석 결과

2004년 이 전			2005년 ~ 2009년		
순위	단어	TF-IDF	순위	단어	TF-IDF
1	program	0.425216	1	work	0.830295
2	satisfaction	0.399338	2	satisfaction	0.778198
3	owners	0.327828	3	job	0.753308
4	unpaid	0.324324	4	succession	0.735029
5	time	0.318249	5	corporations	0.61072
6	manager	0.266333	6	owned	0.597202
7	earner	0.251742	7	social	0.532694
8	contributions	0.249634	8	variables	0.523074
9	employees	0.243441	9	regional	0.522721
10	household	0.240279	10	homebased	0.52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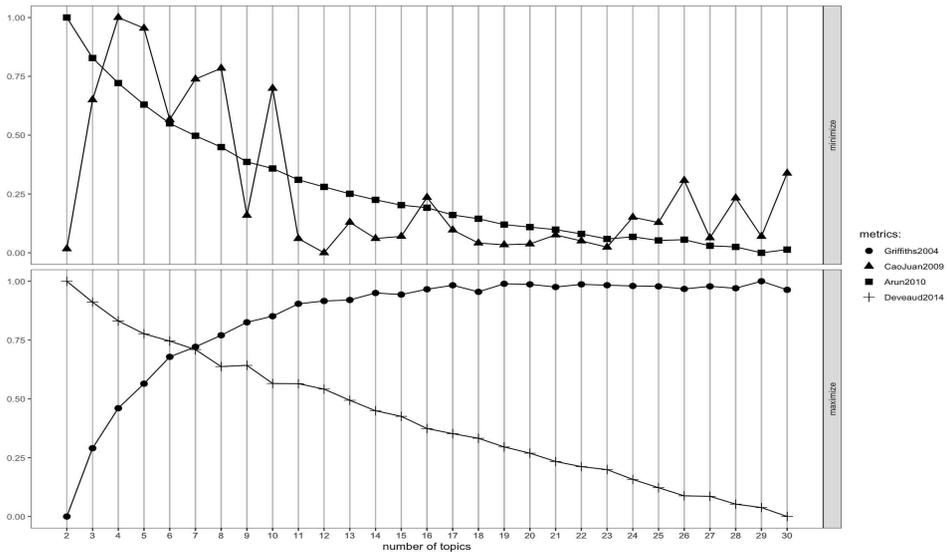
(다음 쪽에서 계속)

<표 3> 연도별 TF-IDF 흐름 분석 결과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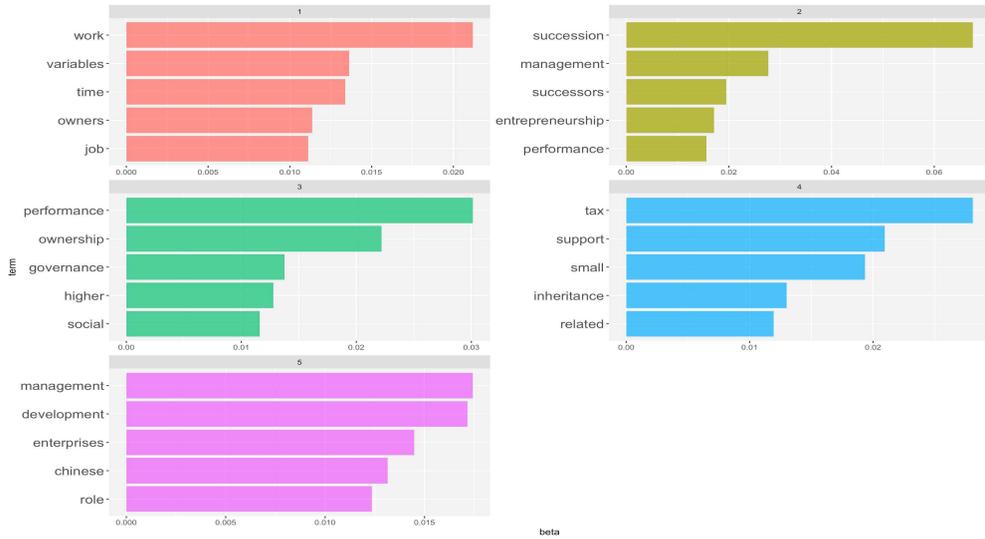
2010년 ~ 2014년			2015년 이후		
순위	단어	TF-IDF	순위	단어	TF-IDF
1	succession	1.163201	1	succession	1.310642
2	tax	0.778877	2	entrepreneurship	1.251364
3	chinese	0.676677	3	performance	1.16735
4	workers	0.672944	4	ownership	0.885682
5	community	0.573721	5	industryacademic	0.836478
6	women	0.557393	6	small	0.7966
7	work	0.552874	7	intention	0.792769
8	support	0.542134	8	successors	0.761117
9	flexible	0.540977	9	tax	0.747196
10	arrangements	0.537499	10	cooperation	0.74273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Log Likelihood Expectation을 적용하고, R패키지 중 FindTopicsNumber을 활용하였다 (양희창 외, 2022). 그래프 상에서 토

픽을 5개 혹은 6개로 분류할 수 있는 값이 도출되었고, 최종적으로 5개의 토픽을 추출하였다 (그림 3). 시각화를 위한 패키지는 LDAvis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그림 3> FindTopicsNumbe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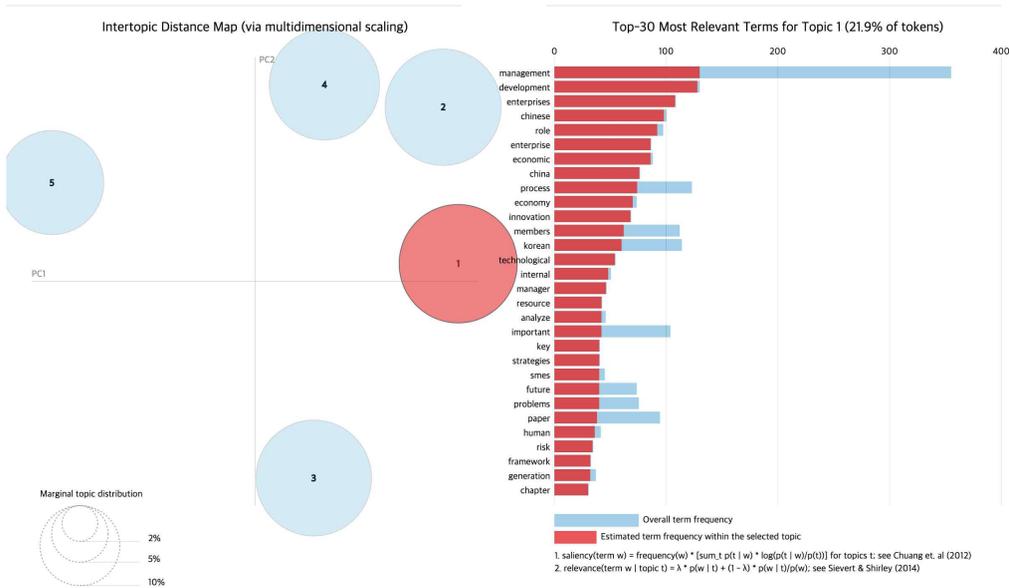
<그림 4> 토픽 별 상위 순위 5개 키워드 분석 결과

분석된 5개의 토픽을 기준으로 각 토픽 별 5개의 상위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도출하였다 (그림 4). 토픽을 명명하기 위하여 가족기업 관련 전공 교수 및 연구자 3인에게 검토를 요청하였다. 1번 토픽의 경우 ‘work’, ‘time’, ‘job’ 등과 연관이 있는 ‘기업업무’로 명명하였고, 2번 토픽의 경우 ‘succession’, ‘successors’, ‘entrepreneurship’ 등과 관련 있는 ‘승계’로 설정하였다. 3번 토픽은 ‘performance’, ‘ownership’, ‘governance’ 등과 연관 있는 ‘지배구조’로 명명하였으

며, 4번 토픽은 ‘tax’, ‘support’, ‘inheritance’ 등의 기준으로 ‘재무전략’, 5번 토픽은 ‘management’, ‘development’, ‘enterprises’ 등과 관련 있는 ‘경영전략’으로 설정하였다. LDAvis의 Intropic Distance Map 비율 및 자세한 상위 키워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LDAvis 시각화 결과를 보면, 각 토픽별 교차되는 지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토픽의 연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표 4> Intropic Distance Map 비율 및 상위 15개 키워드 분석 결과

토픽 No	비율	토픽명	상위 10개 키워드
1	16.9%	기업업무	work, variables, time, owners, job, employees, worker, group, order, satisfaction
2	19.1%	승계	succession, management, successors, entrepreneurship, performance, relationship, successor, ceos, satisfaction, sulture
3	21.1%	지배구조	performance, ownership, governance, higher, social, owned, structure, data, studies, characteristics
4	20.9%	채무전략	tax, support, small, inheritance, found, korea, social, taxation, policy, capital
5	21.9%	경영전략	management, development, enterprises, chinese, role, enterprise, economic, china, process, economic



<그림 5> LDAvis 시각화 분석 결과

## V. 결론

### 1. 연구 결론

본 연구는 가족기업의 연구 진화 동향에 대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 분석 결과 승계를 의미하는 ‘succession’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management’, ‘performance’ 순으로 나타났다. 승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경

영 및 성과에 연구자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4번째로 빈도수가 높은 'tax'의 경우 가업 승계 시, 세제 혜택이 높지 않은 국내 환경을 고려한 이슈로 판단된다. 둘째, TF-IDF 분석 결과 'succession', 'performance', 'satisfaction', 'entrepreneurship' 등 기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상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TF-IDF의 흐름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승계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토픽 모델링 결과 5개의 토픽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해당 토픽은 기업업무, 승계, 지배구조, 재무전략, 경영전략으로 명명될 수 있는 하위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특히 경영 전략과(21.9%) 지배구조(21.1%)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상호 교차하는 토픽은 존재하지 않았다.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원활한 분석을 위하여 영문 초록을 활용하였으나, 한글 초록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각 키워드의 빈도수와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키워드 간 네트워크, 의미연결망 분석 등의 기법을 도입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문헌

- 김석웅. “가족기업의 연구현황과 과제” *중소기업연구*, 24(1), 2002, 187-214.
- 김선아, 박진희, 이현정, & 정유진.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 동향 분석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9(2), 2016, 203-227
- 김순홍.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유통 분야의 4차 산업혁명 기술 트렌드 분석” *물류학회지*, 32(2), 2022, 11-24.
- 남영호. 우리나라 가족기업의 연구동향과 과제. *중소기업연구*, 42(2), 2020, 69-92.
- 양희창, 주윤황 & 조희영. (2022). “LDA를 이용한 편의점(CVS) 연구동향 토픽모델링” *상업교육연구*, 36(2), 2022, 121-143.
- 전채남 & 서일원. 빅데이터 분석의 기술 마케팅활용에 관한 연구 : 잠재 수요기업 발굴을 중심으로. *마케팅논집*, 21(2), 2013, 181-203
- 정근하 & 정철우. “텍스트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미래예측 방법 연구” *충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1-138.
- Anderson, R. C. & Reeb, D. M. "Founding-Family Ownership and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S&P 500", *The Journal of Finance*, 58, 2003.

- Andreini, D., Bettinelli, C., Pedeliento, G., & Apa, R. "How Do Consumers See Firms' Family Nature? A Review of the Literature." *Family Business Review*, 33(1), 2020, 18-37. <https://doi.org/10.1177/0894486519890229>
- Andres, C. "Large shareholders and firm performance-An empirical examination of founding-family ownership",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14, 2008.
- Anglin, A. H., Reid, S. W., Short, J. C., Zachary, M. A., & Rutherford, M. W. "An archival approach to measuring family influence: An organizational identity perspective." *Family Business Review*, 30(1), 2017. 19-36.
- Astrachan, J. H., Klein, S. B., & Smyrios, K. X. "The F-PEC scale of family influence: A proposal for solving the family business definition problem." *Family Business Review*, 15(1), 2002. 45-58.
- Astrachan, J. H., & Shanker, M. C. "Family Business Contribution to the U.S. Economy: A Closer Look", *Family Business Review*, 16(3), 2003.
- Chua, J. H., Chrisman, J. J. & Sharma, P. "Defining the family business by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9(5), 1999. 555-575.
- Churchill, N. C., & Hatten, K. J. "Non-Market-Based Transfers of Wealth and Power: A Research Framework for Family Businesses",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1(3), 1987. 51-63.
- Drucker P. F. "Managing in a Time of Great Change". Harvard Business School Publishing Corporation.
- Family Firm Institute. "Yellow Page: A Resource Guide for Family Business Advisors, Educators, Researchers and Consultants. Boston. M.A. 2001. Family Firm Institute.
- Feldman, R., & Dagan, I. "Knowledge Discovery in Textual Databases" (KDT). 95. 1995, 112-117.
- Griffiths, T., & Steyvers, M. "Finding Scientific Topics" *PNAS*,

- 1(101), 2004, 5228–5235.  
Kubiček, A., & Machek, O. “Intrafamily Conflicts in Family Businesses: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Family Business Review*, 33(2), 2020, 194–227. <https://doi.org/10.1177/0894486519899573>
- Magrelli, V., Rovelli, P., Benedetti, C., Überbacher, R., & De Massis, A. “Generations in Family Business: A Multifield Review and Future Research Agenda.” *Family Business Review*, 35(1), 2022, 15–44. <https://doi.org/10.1177/08944865211069781>
- Paranyushkin, D. “Visualization of text’s polysingularity using network analysis” *Prototype Letters*, 2(3), 2011, 256–278
- Sreih, J., Assaker, G., & Hallak, R. “Entrepreneurial experience, support for community and family firm performance: A cross-study of product and service-based family businesses” *Contemporary Management Research*, 12(4), 2006. 467–496. <https://doi.org/10.7903/cmr.15360>
- Stanley, L. J., Hernández-Linares, R., López-Fernández, M. C., & Kellermanns, F. W. “A Typology of Family Firms: An Investigation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Performance.” *Family Business Review*, 32(2), 2019. 174–194. <https://doi.org/10.1177/0894486519838120>